

## 여행수지 적자, 3년반 만에 최대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 수속을 위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는 해외여행객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줄었던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가 한국은행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여행수입은 30억8천600만 달러, 여행 지출은 63억2천100만 달러로 여행수지 적자액은 32억3천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런 적자 규모는 2019년 3분기 32억8천만달러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여행수지 적자 급증은 유학·연수 수지보다 관광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관광수지는 여행수지에서 유학이나 연수 등을 뺀 일반 여행객들에 의해 발생하는 서비스 수지다.

유학·연수 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6억1천800만달러에서 올해 1분기 6억5천만달러로 5.2% 증가에 그쳤지만, 관광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17억6천100만달러에서 25억8천500만달러로 46.8%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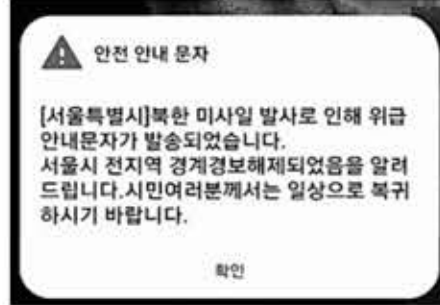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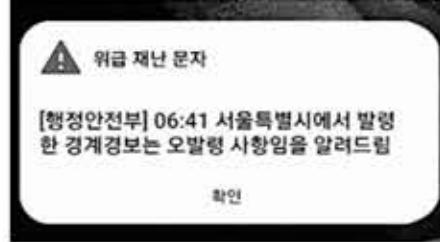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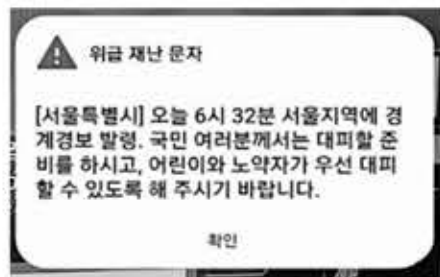
올해 1분기 해외로 나간 국민은 498만명으로 전년 동기(41만명) 대비 1천100% 이상 급증했다. 방한 외래관광객 수 역시 지난해 1분기 28만명에서 올해 1분기 171만명으로 500% 이상 증가했지만, 해외관광객 증가 폭에 못 미쳤다. 팬데믹 이전 한국을 찾은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 수가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 경계경보 오발령에 서울시민들 분통

서울시의 재난문자 오발송으로 시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31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아침 6시41분 서울시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위급한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함께 울리는 사이렌 소리도 더해졌다.

그러나 22분 뒤인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이라고 정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위급재난문자에서 안전재난문자로 변경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 됐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했다.



▲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보낸 위급 재난 문자 사진=연합뉴스

린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했다.

아침부터 놀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서울시민은 "출근 준비 전 아직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피난 가야 한다고 급하게 깨웠다."며 "오발령이 웬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경계경보는 대피할 준비를 해야한다 안내하는 것으로, 다음 단계 경보가 발령되면 구체적인 대피 안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계경보는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발령됐다.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9분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주장 우주발사체' 1발이 발사됐다.

## 한국 내 외국인 소유 토지 53% 미국인 소유

외국인이 소유한 한국 내 주택은 총 8만3,512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4%를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3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8만1,626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전체 한국 주택의 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보유 주택이 4만4,889호(53.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보유가 23.8%(1만9,923호), 캐나다인 보유는 7.0%(5,810호)였다. 대만인이 3,271호(3.9%), 호주인은 1,740호(2.1%)를 보유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이 7만5,959호로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7,553호였다. 외국인 보유 아파트는 5만1,355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2억 6,401만㎡로 1년 새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6%에 해당한다.

미국인 보유 토지가 1억4,095만3천㎡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3.4%를 차지했으며, 중국인(7.8%), 유럽인(7.2%), 일본인(6.3%) 순으로 보유 토지가 많았다.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총 32조8,867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었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